

#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18th ASIAN GAMES

## Jakarta Palembang 2018

오는 18일부터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자카르타 팰렘방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선수의 멋진경기를 기대한다.

##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北 김정은 공식 초청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뿌안 마하라니 인력개발문화조정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네시아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했다. 31일 주간 템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뿌안 마하라니 인력개발문화조정장관은 전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내달 18일로 예정된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초청한다는 내

용이 담겼다. 마하라니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양) 방문의 주된 목적은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양국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등을 김영남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특사단 일원으로 함께 북한을 방문한 샤프룟딘 인도네시아 경찰 부청장은 "인도네시아 안보는 매우 안정돼 있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각

국이 아시안게임 참석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이달 13일 남북한 양국에 초청장 사본을 보냈으며 조만간 특사를 파견해 초청장 원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7일 조코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렛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 45개국을 대표하는 1만1천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6일간 40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친다.

남북은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 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제종합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 정부, 온라인 인허가 통합 시스템(OSS) 시작... 금융·광업은 제외



인도네시아 정부는 9일 온라인 인허가 통합 서비스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OSS는 각 분야의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단일화한 서비스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수피온 경제조정장관은 "사업인가가 1시간 안에 발행된다"라고 말하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이어 "투자조정청(BKPM)에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

되기 전까지 경제조정위원회에서 당분간 운영 관리한다"라고 덧붙였다. 업무 인수인계는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 및 광업 분야에 대한 사업허가는 OSS 서비스에서 배제돼 중앙은행과 에너지광물부에서 각각 받아야 한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두 분야는 허가 절차 자체가 다른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OSS 시스템 구축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투자자에게 쉽게 사업 허가를 발행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령 2018년 제24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의 일환이다.

###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19(己亥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5579 6569 입니다



### 아시안게임 위한 훌쩍제 단속 시작 ... 벌금 부과



▲ 훌쩍제 위반차량 단속 중인 경찰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Aditya)

8월 18일 개막하는 제18회 아시안게임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인 경기장인 자카르타특별주와 남부 수마트라주 팡렘방시에서는 경기 시설의 준비가 98% 완료돼 4년간의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 들고 있다.

1일부터는 대회에 맞춰 차량 진입 규제 방법인 ‘훌쩍제’의 위반 차량에 대해 적발을 시작했다.

자카르타특별주 교통부는 1일, 지난 달 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훌쩍제의 적용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간도 아침 저녁 출·퇴근 러시아워의 총 8시간에서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총 15시간으로 연장됐다. 훌쩍제 위반에 대한 적발도 시작해 위반자에게는 벌금 50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훌쩍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S 빠르만(S. Parman) ▽가뒸 수브로또(Gatot Subroto) ▽D.I. 판자이판(D.I. Panjaitan) ▽아르테리 폰독 인다(Arteri Pondok Indah) ▽H.R. 라수나 사이

드(H.R. Rasuna Said) ▽벤야민 수엵 크마요란(Benyamin Sueb Kemayoran) ▽아마드 야니(Ahmad Yani) ▽쁘린티스 크르르드칸(Perintis Kermerdekaan) 거리 등.

자카르타특별주 운수국의

시깃 부국장은 “일부 거리에서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고 말하며 “쁘넝인다몰(PIM)~간다리아 시티 사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팡렘방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에서 모든 경기장까지 35분 이내에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훌쩍제의 차량 2부제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통제와 일부 통제 게이트를 폐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송 서비스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이달 18일~9월 2일에 걸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는 선수 약 1만 1천명, 대회 관계자 5,000명,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 7천명이 찾아온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바빠나스)은 대회 기간 중 관광객 수가 지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의 2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재무부, 빅 데이터 활용해 세수 확대할 것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금 미납자를 밝혀 세수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세금 사면(조세 특별 사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납세자 정보를 축적해오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담당하는 이반 이사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납세자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 연내 빅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다”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에서는

세무조사가 2년간 200건이 최대였지만, 올해부터 1주일에 3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420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상반기(1~6월) 세수는 연간 목표의 40.84%에 해당하는 581조 5,400만 루피아였다.

세계은행(WB)은 2016년 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전체 세수의 절반 정도 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코위 대통령, 외환 확보 · 루피아 부양책 강구 지시 'B20' 바이오디젤 확대, 이르면 이달 1일부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1일 장관들에게 세계 무역전쟁 여파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 보유고 늘리기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처안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국가는 현재 달러화를 필요로 한다.

나는 좋은 구현 없이 이러한 회의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며 외환 확보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

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니 중앙은행이 루피아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에서 약 120억 달러를 풀면서 보유한 달러가 여유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달러 강세로 루피아의 가치는 달러 대비 약 6% 떨어졌다.

세계 무역전쟁과 루피아 통

화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이달에만 최소 6번의 내각 회의를 거쳤다.

위도도가 즉각 내놓은 대처안은 디젤을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기관차 엔진, 중장비 기기의 연료 대체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인니 산업부 장관은 기존 디젤 연료에 커피오일 등 바이오 성

분 20%를 혼합한 ‘B20’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르파르포 장관은 바이오 연료 사용으로 디젤 수입이 줄어, 연간 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효율성이다. 바이오디젤은 연료비를 절감하고 배기가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연료의 특성상 용매 효과로 엔진 쉘과 캐스킷 물질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취급 및 장비는 필수다.

자동차산업연합 가이킨도(Gaikindo)는 바이오디젤 혼합물이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고 엔진을 과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 인도네시아 지자체 부정부패 ‘심각’ ... 올해에만 지자체장 18명 검거

인도네시아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부정부패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독립수사기관인 부패퇴치위원회(이하 KPK)가 올해 검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지사 2명을 포함한 18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3년 KPK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1998년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제를 시행하면서 현재는 총 34개 주에서 5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분권제 이후 석유나 가스 등의 천연자원 수입과 산출



권한과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됐는데, 이를 통해 교부금이 크게 늘어 올해에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정부 출범 당시 보다 현재 3% 이상 증가해 766조 루피아(한화 약 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여 기업을 상대로 인프라 개발과 자원 개발 등의 인허가를 주는 대신 현금을 받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수마트라 북부 아체 주지사의 경우 국가에서 인프라 개발을 인정하는 대가로 지역 단체장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부정부패 추방을 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 세관과 출입국 직원, 경찰관 등의 부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2014년 이후 검거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50명을 넘어섰다.

## 텔콤셀, ‘T캐시’ 모든 통신 사업자에 개방

인도네시아 최대 모바일 서비스사이자 국영 통신 사업자인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PT Telekomunikasi Indonesia, 이하 텔콤)의 휴대전화 서비스 자회사 텔레코무니카시 셀룰러(PT Telekomunikasi Selular, 이하 텔콤셀)는 디지털 전자 결제 서비스 ‘T-Cash(T캐시)’를 모든 통신 사업자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텔콤셀이 T캐시의 이용자 수를 연내에 4,00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텔콤셀의 다누 위작사나 최고경영자(CEO)는 신규 고객의 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T캐시 처음 이용자에게 ‘반값 캐쉬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 이외의 휴대전화로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



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대 민간은행 센트럴 아시아은행(BCA)이 ‘Sakuku(사쿠쿠)’를, 배차 앱 대기업 고객이 ‘Go-Pay(고페이)’를, 재벌 리본 그룹이 ‘OVO(오보)’ 등 전자 화폐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서 의료서비스 자금조달 나선다

###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현지에서 의료지원 사업에 나선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플랫폼을 마련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화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과 ‘공급망금융(SCF)’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CF는 공급자·수요자·금융기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 비즈니스와 금융 효율성을 극대화한 금융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BPJS 측이 승인한 의료금을 만기 일보다 앞서 의료기관에 대

납해 이들 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기관은 청구서 데이터 등을 공유하기 위한 IT 인프라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며 “현지에서 은행의 사업 잠재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PJ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소득 계층도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설립한 기관이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지난 199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됐다. 현재 6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고객 수는 30만명에 달하며 하나은행이 89.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한 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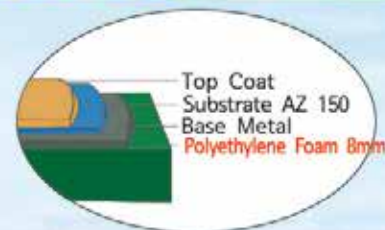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 PROFILE

#####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일점식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 25mm)
3. 35mm Spandek (920,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110,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35, 20)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질판은 호주기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식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무착제품도 생산합니다.

####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중소중앙회, 베트남·인니에 수출컨소시엄 파견...거래선 발굴



중소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소비재 수출컨소시엄을 보내는 등 동남아시아 진출을 늘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13일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내 중소기업 13개사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현지 유틸리티와 1천108만 달러(128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

행했다”며 “현장에서 85만 달러(9억원) 계약이 이뤄졌고 추후 283만 달러(32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국내 3대 수출국이자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8월에 아시안게임이 열려 주변 지역의 소비 특수가 기대돼 파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박광석 종이나라 상무는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최대 빅 바이어와 상담했다”며 “바이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계약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소셜빈 김태민 팀장은 “현지 바이어들의 제품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 동남아 수출계약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현재 K-POP이나 K-뷰티 등 바람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동남아시아에 퍼져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베트남에 있는 아세안사무소를 통해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상담을 주선하는 등 신규 수출 거래선 발굴을 늘려나가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 BCA, 내년 대면 창구 없는 인터넷 은행 개설 계획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 센트럴 아시아 은행(BCA)은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을 내년에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2개의 소규모 은행을 인수할 예정이

며 그 중 하나는 인터넷 은행으로 운영한다. 야후야 행장은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은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JK)의 인가는 앞으로 취득 절차에 들어간다. BCA는 소규모 은행 2개사의 취득 및 자회사 8개사에 대한 투자 예산으로 총 4조 5,000억 루피아를 예상하고 있다. BCA는 디지털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자 화폐 서비스 ‘사쿠쿠’에 QR코드 결제 서

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핀테크(IT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벤처캐피탈 회사(VC) 센트럴 캐피탈 벤투라(PT Central Capital Ventura, 이하 CCV)를 설립했다. 현재 BCA의 거래 업무는 97.5%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나머지 2.5%가 지점에서의 대면 창구 거래로 진행되고 있다.

## 무역전쟁 불똥 튀라... 인니, 선제적 방어책 모색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국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싱가포르 현지매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초공업 개발을 통해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저가 항공사의 규모를 확대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련의 경제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리 몰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국제 이슈들이 여러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국 기업들이 직면한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공업 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실시될 것”이라며 “외부의 불확실성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아이르방가 하르파르도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낙후된 서부의 토지를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출입 관세가 자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 스리 몰야니 인도네시아 재무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수출을 촉진하겠다”면서 “내수시장 경쟁에서도 자국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양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본재 수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선제적 방어책을 도모한 이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주요 국가들의 무역 불균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대미 무역흑자는 133억5,000만 달러(약 14조9,500억원)다. 인도네시아의 대미 주력 수출품은 천연가스다. 지난해 수출 총액의 11%는 미국이 차지했다.

**GOOD**  
interior + taste + service

**산정** SANJUNG  
REAL KOREAN BARBECUE

산정의 깊고 정갈한 맛, 정성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즐기십시오.

최고의 한식 셰프가 만드는 평양식 메밀냉면

전통 한식 바베큐

명품 만두

Pork BBQ 7 Items!  
**Barbeque pork 20% Off**

**Karawaci**  
Jl. Boulevard Palem Raya No.2809 Taman Sari Uppa Karawaci  
(021) 547-3172-3. Hp: 08222-09-55547

**Cikarang**  
Jl. Majapahit, Desa Cibatu Kav.62, Uppa Cikarang  
(021) 2909-3000, (021)2909-3555 Hp: 0812-9037-7717

**Pantai Indah Kapuk**  
Ruko the Gallery Block 8 unit FC Jl.Pantai Indah Utara 2, Pantai Indah Kapuk  
(021) 3005-1650, (021)3005-1660 Hp: 0811-823-9000



# 문대통령 “아시아 시대 확산 … 新남방정책은 신경제지도의 핵심”

## “인도는 美·中과 G3 형성, 싱가포르를 아세안 의장국…新남방 양대 축”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北 국제사회 일원 되도록 지원하는데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3일 진행된 인도·싱가포르 순방과 관련,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신남방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외교에서 합의된 사항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싱가포르는 금년 아세안 의장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선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양국의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 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남방정책을 접목해 사람 중심의 평화·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방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도·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6

향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

회의 참석, 올해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 신한은행, 중국산업 인도네시아 스마트 팩토리 ICT 플랫폼 현지 구축 협업

신한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은행장 변상모)은 (주) 풍국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PT. Pungkook Indonesia와 은행 계좌 통합형 NFC 카드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구축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탑재한 ATM Debit 카드를 도입하여 풍국산업이 추

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단계인 ICT Platform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NFC칩이 내장된 ATM Debit 카드는 공장 모든 작업자들에게 개별 지급되며 종업원 개인 급여 계좌와 연동되어 있

는 공장 종업원의 작업 효율성 및 근태 관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종업원 신용대출의 대안 스코어링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향후 공장 근로자들

은 종합 가방 ODM 업체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그로보간(Grobogan)에 제2공장을 가동 중으로 약 7,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의 스마트팩토리 ICT 플랫폼 구축 협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서 Win-Win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유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 공항 픽업 서비스
- ☑ 리버보트
- ☑ 점심
-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유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스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어 인도네시아 내 모든 ATM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생산라인에서는 IOT로 연결된 각 디바이스에 개인 카드를 태그함으로써 제조 기계에 연결된 개인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 적정 작업량 배분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에서

대상으로 종업원 신용대출 및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풍국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세스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풍국산업은 1966년 창립하여 코치, 마이클코어스, 그레고리, 오스프리, 아디다스 등 세계적 브랜드에 납품하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내역**

1. 현지 법인설립(PMA 외국투자법인 및 현지회사)
2. 투자청 업무 (IUT, 고정사업허가 / 주주 및 주식변경,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업종변경, 주소이전 등)
3. 이타스비자(구 키타스)
4. 은퇴비자(란시아 비자)
5. Property (부동산)

카카오톡 ID: kitas 이메일 : ptgcc@hanmail.net  
Tel : 021-5577-6454, 021-5524-236  
위치 : 땅그랑 리브 까라와치 루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 18 (명가식당앞 상가)



#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 이벤트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8월 18일~9월 2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듯하다.

미국 통신사 UPI는 지난 25일 통일부 발표를 인용, "아시안 게임에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할 북측 선수단 34명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오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보도했다. 북측 선수단은 여자농구 4명, 카누 18명, 조정 8명, 지원인력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 대표팀과 공동훈련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로 함께 출발한다. 때마침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서해위성발사장) 폐쇄조치를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8월중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북미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 중국 환구망 7월 25일)도 나왔다. 남·북·미·중 외교부 장관이 내달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함께 모여 4자 간 실무 조율을 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언론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아시안 게임'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영문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에 있어 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장소다. 발사장 해체는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지난 24일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병력과 중화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앞서 3대 일간지 미디어인도

네시아는 "북한의 로숙영, 장미경, 김혜연 선수가 2018아시안게임 여성 농구 남북단일팀에 합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보도(7월 23일)했다.

이 신문은 지난 18일 코리아오

른 국제탁구대회를 다루면서 양국을 하나로 만드는 '핑퐁 외교'라는 제목을 썼다. 이 대회에서 차효심(북한)과 장우진(한국)은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 1991년 이후 27년 만에 합동 우승을 일궈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크게 주목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인터넷매체인 데크닷컴도 지난 17일 "아시안게임은 4월 이후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과정을 계속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개·폐막식에 공동 행진을 하고 3개 종목에 단일팀으로 출전한다. 아시안게임이 남북평화에 좋은 모멘텀인 것 같다"는 기사(Liputan6.com 7월 6일)도 눈에 띈다.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아시안게임을 미리 살펴보자.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콤포빠스는 지난 10일 "2018 아시안 게임(45개국 참가, 40개 종목)에는 18만5,400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1만1,000여 명의 선수, 4,400여 명의 선수지원단, 그리고 17만 명의 외국 응원단이 포함된 수치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보다 약 20% 증가한 숫자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4일 현재 아시안게임 입장권 판매율이 약 20%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개막식 티켓 판매율(약 50%)이 높고, 주요 종목인 배드민턴 경기 입장권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관람권 판매 목표치는 200만 장이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팀 구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CNN인도네시아는 지난 18일 "손흥민 등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선수 4명이 아시안게임 출전한다"라고 보도했다. 드닷컴(7월 16일)은 "조현우 골키퍼와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시스템은 마무리 단계다. 주 경기장인 겔라라 봉카르노 경기장(GBK)은 99% 공정률로 미화 작업만 남은 상태다.

7월31일 모든 작업을 끝낸다고 한다. 고마요란 지역 선수촌 10개 동과 자카바링 스포츠타워의 5개 선수촌은 총 2만2278명의 선수를 수용할 수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1만4,000여 명 이상 수용)을 충족했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동안 자카르타 지역의 트랜스 자카르타 버스는 무료로 운행(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하고, 팔렘방 지역의 공항 철도 LRT(최대 시속 60킬로미터) 운행도 13개 역 중 6개 역만 제한적으로 운행해 이동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아시안 게임 안전을 위해 약 10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한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인도에서 시작했다. 그 때문에 성화 채화는 인도에서 한다. 미디어인도네시아는 성화 채화와 봉송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난 15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디안 찬드경기장, 인도네시아 배드민턴계 전설인 수시 수산띠가 30여명의 인도네시아 선수들과 함께 아시안게임을 밝힐 불꽃을 채화했다.

성화는 7월 17일 오전 인도네시아 중부 족자카르타 자와의 프람바난사원에 도착, 18개주 54개시를 돌고 있다"

개막식 무대는 아시안게임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콤포빠스(7월 9일자)는 개막식 무대의 무게가 600t, 길이 135m, 너비 30m, 높이 26m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컨셉 아래 350명이 공연을 펼친다고 전했다. 산을 모방한 무대(약 1,350㎡)는 1만2,775개의 식물로 뒤덮이고, 약 14만ℓ의 물이 쏟아지는 큰 폭포가 설치된다.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안따라는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 사이에 아세안(ASEAN)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도(6월 12일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2억6,679만여 명)를 가진 아세안 회원국이다.

한국 멕시코 터키 호주와 함께 2013년 출범한 중견국협의 체 믹타(MIKTA) 회원국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반도 난제 해결 기회 잡아'라는 사설(7월 25일)을 실었다. "서해 위성발사장 일부 해체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무기가 아닌 경제 발전에 새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시각을 가질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고, 중국과 한국은 지지 및 중재에 관련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8월 아시안게임이 그 중요한 역할의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미디어인도네시아(7월 18일자)에 실린 2018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기사

##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개막 앞두고 테러 대응 태세 강화



▲ 2018년 7월 31일 인도네시아 남(南)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테러조직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자이날 안쇼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IS 추종 테러조직 불법단체 규정...대대적 단속 착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앞둔 인도네시아가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IS)를 추종하는 국내 테러조직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 단속에 착수했다.

1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南)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전날 인도네시아 내 IS 연계 테러조직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JAD 조직원들이 테러를 벌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JAD가 해 온 일은 공공불안과 공포확산이었다"고 말했다.

2015년 출범한 JAD는 2016

년 1월 자카르타 도심 총기·폭탄 테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크고 작은 테러를 벌여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동(東) 팔리만판 주의 한 교회에 화염병을 던져 2살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2~4살 어린이 3명에게 중화상을 입혔다. 작년에는 자카르타 시내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경찰관 3명이 사망했다.

최근에는 동(東) 자바 주 수라바야에서 JAD의 남성 조직원들이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을 이끌고 교회와 성당, 경찰본부 등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1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JAD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하원은 법원에 의해 테러를 저지르는 불법단체로 규정될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휴면 세포(sleeper cell)' 조직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대(對) 테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런 단순 가담자들은 2~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휘부와 중간 간부급의 형량은 3~12년이지만 테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지난달 JAD를 창립한 급진 성향 이슬람 성직자 아만 압두라흐만(4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만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추종자들에게 정부와 경찰을 공격할 것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JAD가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즉각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인 '88과견대'(원수스 88)는 전날 리아우 주와 반톤 주에서 JAD 조직원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18일 개막하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해 왔다.

앞서, 인도네시아 하원은 법원에 의해 테러를 저지르는 불법단체로 규정될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휴면 세포(sleeper cell)' 조직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대(對) 테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런 단순 가담자들은 2~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휘부와 중간 간부급의 형량은 3~12년이지만 테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지난달 JAD를 창립한 급진 성향 이슬람 성직자 아만 압두라흐만(4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만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추종자들에게 정부와 경찰을 공격할 것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JAD가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즉각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인 '88과견대'(원수스 88)는 전날 리아우 주와 반톤 주에서 JAD 조직원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18일 개막하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해 왔다.

앞서, 인도네시아 하원은 법원에 의해 테러를 저지르는 불법단체로 규정될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휴면 세포(sleeper cell)' 조직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대(對) 테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런 단순 가담자들은 2~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휘부와 중간 간부급의 형량은 3~12년이지만 테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지난달 JAD를 창립한 급진 성향 이슬람 성직자 아만 압두라흐만(4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만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추종자들에게 정부와 경찰을 공격할 것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JAD가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즉각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인 '88과견대'(원수스 88)는 전날 리아우 주와 반톤 주에서 JAD 조직원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18일 개막하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해 왔다.





나는 '예배학' 이니 '설교학' 이니 하는 학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성경적인 예배와 설교를 추구하는 건 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게 너무 화석화하여 전통적인 관습이나 유전에 매여 교조적인 교리가 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한다.

**설교는 무오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마치 중세 교회의 미사나 구약의 제사처럼 지나치게 예식화하며 종교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 사도들의 집회는 현재보다 매우 단순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순서라고 열거할 것도 별로 없었다. 따라서 예배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가능한 치장하지 말고 담백할수록 좋다고 본다.

설교자 역시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 이라도 되는 양 설교를 장식하지 말고 성경의 진의를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옳다고 생각한다.

개신교 목사는 본질상 사제가 아니고 오히려 교사의 직분에 가깝다.

따라서 설교 시간이 예배의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설교 자체가 제사적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설교는 사람이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은 무오하지 않다.

제 아무리 소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 교회 속의 설교자는 완벽하지 못하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많은 굴곡을 겪어왔고 근자에는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 교회 성직자의 제사장적 월권을 다시 반복하며 돈과 권력으로 심하게 부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설교 권력' 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개신교는 설교가 교회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교회

를 지키려 노력한 것도 설교를 통해서였고, 반대로 그 세상을 닦아가며 교회를 오염시킨 것도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세뇌한 덕분이었다.

**공개 질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적극 부인하고 싶겠지만, 회중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은 성경적 오류, 신학적 오류, 그리고 인문학적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개신교의 고질적인 설교 오류 관행을 대중 용납하고 묵인해야 할까.

특히 요즘처럼 설교가 범람

채질했다. 결국에는 신도들을 설교자에게 종속시키는 '무당 목회' 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 실제적인 설교 평가나 설교 비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은 교인들이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회당 정신' 의 회복**

그동안 교회가 통째로 우민화하고 맹신화하는 경우가 자

다른 게 없다.

개신교의 노련한 샅꾼 목사들은 합법적으로 교회 돈 퍼가고, 합법적으로 교회 양도하고, 합법적으로 교회 재산 사유화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습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개신교 성직이 먹음직한 기득권으로 변질되고 있다. "담임목사 한번 잘하면 평생 먹고 살고, 거기에 세습까지 하면 대대로 먹고 산다" 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교회 집회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예배 중에 무슨 개별적 질문이나!" 하며 반발할지는 몰라도 인간의 예배를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 그런 단순한 종교수학적 논리가 옳다면 신성한 예배 중에 광고하거나 풍돈 걷는 건 왜 괜찮은가? 더구나 상당수 설교자들은 요즘도 특히 설교 중에 농담하고 잡담하고 심지어 수다까지 떨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당시 유대의 회당 집회에선 누구나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묻고 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율법 학자가 아닌 어부, 목수, 세리, 의사 등 보통 사람들도 거기서 자유롭게 설교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이제 개신교는 그 '회당 정신' 을 회복해야 옳다고 본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교회당 건물은 제단이나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이 없는 설교가 개신교를 망치고 있다.

당당뉴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시대엔 더욱 심각하다. 좋은 설교는 보약이지만 나쁜 설교는 마약이다.

아무나 강단에 서서 말한다 고 해서 그 설교가 저절로 '하나님말씀' 으로 둔갑하는 건 아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매우 의도적이며 악의적으로 설교를 이용하는 사이비 목회자들도 있다.

목회자라는 직분을 남용하여 설교로 신도를 기복화하거나 맹신화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에 결코 적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은 신도들의 '설교 의존 신앙' 을 더욱 부

그런데 다행히 굳이 새로 번잡하게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매주 설교 후 교인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간단히 공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 설교를 듣다 보면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곳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소 틀리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분명히 잘못된 설교라고 느끼는 내용이 있는데 많

주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잘못된 설교가 계속 누적되어 쌓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실한 목회자들도 간혹 실수할 수 있겠지만 샅꾼 목사들의 경우는 정말 심각하다.

그들은 겉으로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틈만 나면 자기 주머니와 이익을 실속있게 챙긴다. 그래서 성경으로 재주 부리고, 교권으로 기만하고, 제도로 장난친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거의 다 합법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유대의 바리새파 도적과 크게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이,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리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강문갑의 역사속으로

[1905년 여름, “내가 보증한다” (3)]



▲1905년 윤병구와 이승만(오른쪽)의 시어도어 루스벨트(왼쪽) 면담내용을 보도한 등 미국 신문 기사들, 자료사진 미 의회 도서관

1902년 1월, 제1차 영일 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일본 제국주의 창시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할 특사로 가네코 겐타로 남작을 임명하였다.

루스벨트와 가네코의 비밀 회담은 1904년 3월26일 시작되어 19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1904년 6월6일 루스벨트는 가네코와 다카히라 대사를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비밀 대담하는 자리에서 루스벨트는 “미국이 카리브해 주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듯이 일본은 황해 주변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일본이 태평양의 미국 식민지를 침략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가네코 일행은 “일본이 필리핀을 넘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난센스”라며 루스벨트를 안심시켰다.

1905년 4월20일, 루스벨트는 태프트에게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한다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나는 일본의 강화조약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하여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앞장서서 추진했다.

1905년 7월8일, 루스벨트는 가네코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은 서양문명의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현시대에 맞게 적응을 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봉착해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선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국가들을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지켜냈듯이 말이다.”라고 썼다.

1905년 여름,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았으나, 1905년 7월25일 태프트 일행을 태운 맨추리어

호가 요코하마에 정박하자 수만명의 일본인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부두에 운집해 만세를 외쳤다.

루스벨트는 1905년 7월27일부터 29일까지 육군장관 테프트를 일본으로 보내 가쓰라 총리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게 했다.

가쓰라는 가네코로부터 받은 비망록에서 루스벨트의 의중을 간파했기 때문에 테프트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루스벨트와 직접 의견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쓰라는 태프트에게 “러시아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한제국이며, 조선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쟁의 논리적 결과이고, 이는 일본에 실로 중대한 문제다.

만약 전쟁 이후에도 조선에 맡긴다면, 조선은 또 다시 다른 국가들과 협정이나 조약을 맺어 전쟁 이전과 같은 복잡한 상황을 재발시킬 것이므로, 조선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일본이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할 의도를 드러냈다.

태프트는 “일본의 군대로써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전쟁의 필연적 결과”라며 군사력에 입각한 조선에 대한 종주권까지 인정했다.

루스벨트는 밀약 내용의 확인 후 태프트에게 “가쓰라공작과 귀하가 나눈 대화는 모든 면에서 타당하며, 귀하가 언급한 모든 단어는 내가 보증한다는 말을 가쓰라에게 전해주기 바람.”이라며 밀약을 추진했다.

1905년 8월4일, 이승만과 윤병구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일본의 침략으로 대한제국을 구하는 데 ‘거중조정’의 역할을 청원하기 위해 루스벨트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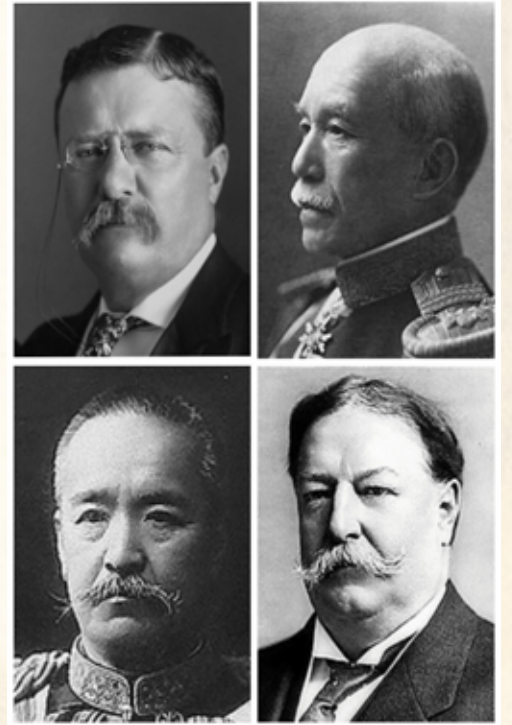
8월4일 <뉴욕데일리 트리뷴>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황제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진회라는 단체

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위임받았으며, 황제는 조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일진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곧 국무를 장악하고 정부 구실을 할 것”이며, “러시아 사람들은 줄곧 적이었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에 기뻐한다”는 윤병구의 말을 빌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들은 일본을 주인으로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1905년 8월12일, 일본은 영국과 대한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해 갔다.

1905년 여름 국제정세에 무지했으며, 강력한 군대와 유능한 외교관을 양성하지 못했던 대한제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 이미지 1. 세계방향을 시어도어 루스벨트, 가네코 겐타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가쓰라 다로

최고의 건강 선물  
**빨간야파즘**  
 링겔  
 Rp. 600.000 60팩 / Box

**한국건강원**

빨간야파즘, 양배추즙, 강황즙, 우영한약즙, 우영즙, 늙은호박즙, 여주즙, 가지즙, 미나리즙, 시르식즙, 십전대보탕, 개소주 액기스, 장어 액기스, 코브라 액기스, 킹코브라 액기스, 배도라지즙, 배즙, 키위즙, 포도즙, 사과즙, 비아그라, 씨알리스, 웅담, 저담, 사담

**이슬브** 증류액  
 개소주 증류액, 흑염소 증류액, 코브라 증류액, 자라 증류액, 잉어 증류액, 장어 증류액, 봉어 증류액, 마늘 증류액, 오가피 증류액

HP. 0811-92-3200  
 Tel. 021-2931 3027

인도네시아 전 지역  
 배달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업 EV 하이브가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약 217억 원(2천만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주도하고 H&CK파트너스와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라인벤처스, 네이버,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V 하이브는 2015년 설립 후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프리랜서와 1인 기업, 스타트업 등에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특성상 고가의 임대료를 1년치 이상 선불로 지급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장기 계약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스타트업이 사무공간을 구하기 쉽지 않다. EV 하이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유 오피스 수요가 성장할 것을 내다보고 시장을 선점해 운영

인니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EV 하이브, 2천만 달러 투자 유치

면적과 지점 수에서 압도적인 1위로 성장했다. 현재 21개 지점에 3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 1년 간 입주자 수와 운영 면적은 각각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이은우 파트너는 “EV 하이브는 동남아 시장에서 스타트업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의해 차세대 유니콘 성장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동남아 시장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다양한 사업 시

너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V 하이브의 칼슨 라우 대표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자카르타 랜드마크 빌딩 공간을 다수 확보하여 8월까지 9개 층을 새롭게 열고 규모를 키우겠다”며 “입주 커뮤니티들이 긴밀히 소통하는 앱 기능을 강화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발리와 반둥, 수라바야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만큼 나쁘다” ... 아시안게임 앞둔 자카르타, 대기오염 비상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21일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 비주얼’ (AirVisual)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공기 질 지수(AQI)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기준 168로 집계됐다

이는 환자나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하는 수준이다.

세계 도시 별 순위를 보면 자카르타는 중국 베이징(170)에 이어 두번째로 공기 질이 나쁜 도시로 꼽혔다.

자카르타는 지난 18~19일에는 베이징과 인도 뉴델리 등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여타 도시를 모두 제치고 한때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로 평가되기도 했다.

실제, 자카르타 하늘은 최근 몇 달간 뿌옇게 흐려진 채 맑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지인들 사이에선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인 겔라라 봉 까르노 스타디움이 위치한 남(南) 자카르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월 들어 일평균 66 $\mu\text{g}/\text{m}^3$ 였으며, 최고치는 141.9 $\mu\text{g}/\text{m}^3$ 로 기록됐다.

러시아워에는 일산화탄소(CO) 농도가 일시적으로 2천 500ppm을 넘어서는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일부 조사기관은 밝혔다.

주된 원인으로는 차량 매연이 지목된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유연 휘발유폐기위원회(KPBB)의 아흐맛 사이푸딘 의장은 “자카르타의 경우 대기오염의 47~70%가 차량 매연에서 비롯된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2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인구 1천만 명의 동남아 최대 도시이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탓에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1천300만대와 자동차 440만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기(4~9월)를 맞아 자카르타 시내 곳곳의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도 공기 질을 더



▲ 21일 오전 인도네시아 남(南) 자카르타 지역이 스모그로 덮여 있다.

욱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당국은 친환경 버스를 투입하고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는 한편 아시안게임 개막 2주 전부터 시내 건설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팔렘방 인근을

비롯한 수마트라 주 곳곳에선 건조한 날씨와 강한 햇볕으로 인한 산불 조짐이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매년 건기마다 대규모 산불 때문에 주변 도시가 연무로 뒤덮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괄대리점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속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버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계명대학교 학생봉사단 보고르 지역 초등학교 봉사활동 성료



▲ 수료식 및 문화공연 단체사진 (사진=계명대 제공)

계명대학교 학생봉사단 (단장 이병로)은 지난 달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서부자바 보고르 지역 짜게아스03 초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마쳤다. 학생 32명, 인솔교수 및 단장 3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계명대 봉사단은 교육봉사, 기증봉사, 노력봉사, 문화공연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화장실 및 보건실 증축, 쓰레기 소각장 설치, 교문 신축, 도색 및 벽화, 운동



장 및 바닥 보수공사를 하고, 한글교육, 난타, 부채춤, k-pop-댄스, 태권도 등의 문화 활동으로 한국문화를 선보였다. 이에 더해 교실 선풍기, 화이트보드, 노트북, 빔프로젝트,



문구류 등을 기증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재인니 계명대학교 동창회 노태진 회장은 봉사활동 수료식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명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낸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박재한 교문은 ‘계명대학교와 짜게아스03 초등학교 관계를 시작으로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이 되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향후 이 곳 학생들이 계명대학교로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서 얼굴 2개인 아기 태어나

지난 5월 초, 인도네시아 바뎀에서 얼굴이 2개인 아이가 태어났다. 삼쌍둥이와는 다른 아이다. 하나의 몸에 2개의 팔, 2개의 다리에 하나의 머리를 가졌지만, 얼굴만 2개인 아이다. ‘인사이드 에디션’에 따르면, 각 얼굴은 독립적인 눈, 코, 입과 뇌를 따로 갖고 있다.



‘METRO’의 보도에 따르면, 이 증상은 ‘두개 안면 중복’ (craniofacial duplication)으로 불린다. 자궁에서 난자가 분할하는 동안 발생한 이상에 의한 것인데, 얼굴의 일부 혹은 전체가 두 배로 커지기도 한다.

아이의 이름은 길랑이다. 길랑의 엄마 에르닐라사리 안다까는 임신 기간 동안 특별한 조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3번이나 했지만, 의사도 길랑에게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의사는 단지 태아의 머리가 커지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길랑은 현재 엄마의 모유를

먹지 못하고 있다.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뇌에 체액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뇌 손상을 일으키는 수도증도 겪고 있다.

바뎀 내 병원의 의사들은 길랑이 살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쪽 얼굴과 뇌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길랑은 수술 후 살아남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의사들은 길랑이 평생 학습장애와 언어, 시력, 기억력에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외대, 2018년 하계 월드프렌즈 PAS 청년봉사단 인도네시아 파견



▲ 2018년 하계 월드프렌즈 PAS 청년봉사단 단일팀 모습(사진=부산외국어대학교 제공)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정기영)는 지난 1일부터 3주간 ‘2018년 월드프렌즈 PAS 청년봉사단’ 20명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파견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as Indonesia)의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태권도, K-POP, 탈춤 등을 알려주는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외교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PAS)와 부산외대 사회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 실현과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외국문화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외대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한국학과 재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오후에는 태권도, K-POP, 탈춤, 합창 등의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장애우들이 기거하고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

여 각종 놀이 활동 및 목욕봉사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해외봉사단의 학생팀장을 맡은 공태웅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약 3달간 많은 준비를 해 왔다.”며 “우리가 준비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에 크게 기뻐하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보며 그간의 고생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듯 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솔자로 이번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회봉사센터장 정의림 교수는 “무척이나 힘들었던 준비 기간만큼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어 가는 것이 매우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하고 전원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외대 사회봉사센터는 해외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가정 및 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신문)

##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대사관 동포안내문]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는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동포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니, 경축식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의 광복 73주년을 다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년 8월 15일 (수), 오전 9시  
 - 가능한 한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1층 강당  
 - 대사관 주소 : Jl. Jend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다. 참석자 유의사항  
 - 행사 참석 동포분들께서는 보안을 위해, 여권 또는 체류허가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문화강좌” 2018년 하반기 회원모집

월요일: 난타아리아 강좌(강사: 원순옥), 오전 9시~12시, ☆사물놀이 강좌 회원님들도 모집합니다.  
 화요일: 미술회화 강좌(강사: 서현옥), 회원모집 없음  
 수요일: 손자수 강좌(강사: 박미경), 오전 9:00~오후

2:00  
 목요일: 기초 인니어 강좌 (강사: 조은숙), 오전 9시~10시 30분, 8월 9일부터 11월 22일 16주 과정, 책: 클릭 인도네시아, 부교재 및 보충 프린트물 제공  
 금요일: 기타 강좌(강사: 전

준구) 오전 9:00~10:30  
 장소: Ruko Pinangsia blok H-28, 2층 lippo karawaci tangerang  
 문의 및 신청방법: 1:1 특 또는 0812 8199 9542 (허미숙 사무국장)

2018 세계청소년한글백일장 8월31일 마감

<취지>  
 월드코리아신문이 세계한인 2세와 한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2회 세계청소년한글백일장이 8월31일 마감합니다. 해외 한인사회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최/주관>  
 -주최: 세계청소년한글백일장 실행위원회  
 -주관: 월드코리아신문/세계한인작가연합/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재외한인구조단  
 -후원: 세계한인무역협회/한중문예진흥원  
 <응시자격>  
 -해외동포 및 해외한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초중고생)  
 <대회구성>  
 -응모종목: 운문부문, 산문

부문(두 부문 다 응모하는 것도 가능)  
 \*운문은 2편, 산문은 1편(글자 수 1,000자 이상 1,500자 미만), 한글문서 또는 워드문서 모두 가능  
 \*응모주제: 자유주제(예: 평화 통일, 독도, 한글...)  
 \*응모기간: 7월10일~8월31일  
 \*응모방법: 이메일(wk@worldkorean.net)로 접수. 8월31일 자정(한국시간)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것만 유효한 응모로 간주  
 \*작품 맨 아래 응모자 이름, 출생연도, 다니는 학교이름 및 학년, 얼굴사진(jpg 1,000 픽셀 이상 파일), 연락전화번호(보호자 성함 및 휴대폰번호), 연락 이메일, 상장을 우송받을 우편주소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당선작 발표: 10월9일 한글날  
 <시상내역>  
 -최우수상: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부 각 1명  
 -우수상: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부 각 3명 내외  
 -佳作: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부 각 5명 내외 (국회외교통일위원장상,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서울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등 다양한 상 시상 예정)  
 \*수상작을 모아 수상작품집도 출간합니다.  
<http://www.worldkorean-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6074>

관광공사, 자카르타서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 개최



▲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편중된 방한 의료관광 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종합병원 등 10개 의료기관 및 5개 유치업체, 현지에서는 의료 에이전시, 종합병원, 대형 건강검진센터 및 뷰티샵 등 관련업체 50여곳이 참가했다.  
 20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양국 참가기관 간 B2B(기업간거래)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된다.  
 현지 진출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CIMB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소득층 VIP고객 300여명을 초청, 방한 의료관광 상담을 했다.  
 같은 날 자카르타 최대 쇼핑몰인 따만앙그렉에서는 현지 지상파 TV채널 MNC TV 등 50여개 언론매체를 초청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했다.

연예인 겸 뷰티 파워블로거인 제닌 인판사리가 '한국의 의료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21일, 22일에는 따만앙그렉 쇼핑몰에서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와 상담이 이뤄진다.  
 2017년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 32만1천574명 중 인도네시아인은 2천385명으로, 아직 비중은 낮은 편이나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326만원으로 전체 의료방한객 평균 진료비(199만원)의 약 1.6배를 상회한다.  
 주성희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은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는 진료수입 확대와 더불어 관광, 쇼핑 등 다른 산업과 연관돼 부가가치가 높다"며 "이번 인도네시아 로드쇼는 방한 관광시장의 고급화를 선도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고, 상반기의 베트남 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태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 우리소다라은행 'Infobank 2018 최우수 은행 1위' 선정

은행 경영 전부분 종합평가에서 한국계 은행 최초로 4개 부문 '최우수 은행' 선정 및 1위 수상  
인도네시아 전체 115개 은행 중 '23년 연속 최우수 은행' 은 우리소다라은행 유일

우리소다라은행은(www.bankwoorisaudara.com, 은행장 박태용)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지 Infobank Magazine의 2018년 은행평가에서 '자산그룹별 최우수 은행', 최우수 외국계 은행, 최우수 상장은행, 최우수 국제금융 은행의 총 4개 부문에서 '최우수 은행' 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4개 부문 '최우수 은행 수상' 은 한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이다.



특히 '자산별 그룹(BUKU2)' 과 '외국계 은행 그룹' 에서 1위 은행으로 선정되는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식시장 상장은행과 국제금융 은행 그룹에서도 전체 7위로 선정되는 등 이

번 평가에서 다른 한국계 은행과 비교 월등한 평가 성적을 거두었다.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상 현지은행 및 다른 외국계은행들과 경쟁하는 객관적인 종합평가에서 이렇게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사례

는 처음있는 만큼 정말 놀라운 쾌거라고 할 수 있다.

Infobank는 우리소다라은행이 최근 인도네시아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건전성, 효율성 등의 7개 종합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철저한 현지화와 핀테크를 활용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한 부문이 아닌 평가 전 부문에 걸쳐 최우수 은행과 1위 은행 등으로 선정

된 점에 대해 이례적인 호평을 쏟아 냈다.

우리소다라은행 박태용 행장은 "이번 수상으로 우리소다라은행은 1996년 Infobank 평가시작 이후 23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23년 이상 최우수은행을 수상한 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체 115개 은행 중 우리소다라은행이 유일한 은행." 이라며, "이에 만족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네시아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금융서비스와 더 좋은 금융상품 제공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고객님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겠다." 라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2014년 말 한국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인도네시아 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하여 새롭게 탄생한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금융, 외환,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인 금융기관의 장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중대형 은행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계 은행 중 최대 점포망(154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에도 주요 도시인 메단, 마카사르, 한국 기업 밀집지역인 중부자바 브레브스 3곳에 지점 개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점포망을 구축 인도네시아 고객님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손쉽게 우리소다라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미국 GSP 검토 앞두고 협상팀 구성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면세혜택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통상대표부(USTR)에 로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르민 나수피온 경제조정장관은 미국 행정부에 GSP 유지를 설득할 대표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다르민 조정장관은 GSP가 폐지될 경우 인도네시아산 주요 자원 수출이 30~40% 하락할 수 있다며, 미국이 GSP를 폐지하고 인도네시아산 주요 자원에 10~25%의 수입관

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GSP는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약자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대가 없이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이다.

USTR은 지난 4월 12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도, 카자흐스탄에 대한 GSP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과 중국 간 무

역분쟁이 시작된 후 GSP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에서도 미국의 GSP와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

USTR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에 GSP를 통해 미국으로 2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이는 대미교역국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GSP를 통해 지난해 미국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한 국가는 인도로 56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에 대미 무역에서 177억 7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81억2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96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 주로 섬유, 신발, 야자유를 수출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대인도네시아 무역에

서 2017년에 68억6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02억 달러어치를 수입해 133억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국제관계 담당 신타 깡다니 부회장은 양국 간 무역이 상호이익이 되게 하려면 GSP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SP 유지가 인도네시아로서는 대미 수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 경제학자 피트라 파이살 하스피아디 씨는 GSP가 폐지되면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해 궁극적으로 루피아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1일 자카르타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대두 수입관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JOURN DOOR



Flooring, Skirting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Furniture DONGSEO**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